

국내에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름 : 박서진

학과 : 한식조리과학전공

학번 : 202311185

서론~ 결론 (5p) + 참고문헌

1. 서론

바쁜 일상 속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리 모두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일주일 중 5일 동안 직장생활을 한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도 일주일에 하루 종일 쉬는 날이 2일 밖에 안 된다. 5일 동안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쉬는 것이 일을 한 것에 비해 시간이 작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행복지수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이 5.951점(0~10점 범위)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 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2022년보다 2순위 높아졌으며,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임.

137개국 중 57위로 높지 않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것에서 저자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이 다소 많아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뉴스 결과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2)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국내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해 단축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여전히 오래 일하는 축에 든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노동 시간은 연간 1915시간이다. 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날짜로는 약 25일을 더 일한다. 주 4일제는 현행 40시간 법정 근로시간도 더 단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등장했다. 국내 법정 근로시간은 2003년 이후 20년간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즉 다른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근로시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주 4일제를 시행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혼자 편하게 쉴 수 있고, 주변인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1) 국회미래연구원,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2023년 5월 9일, 2023년 5월 28일 접속,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5277>

2) 더팩트, "하루만 더 쉬었으면"...K직장인의 꿈 '주 4일제'", 2023년 5월 23일 수정, 2023년 5월 23일 접속, <https://news.tf.co.kr/read/life/2018147.htm>

2. 본론

<참고문헌>

국회미래연구원,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2023년 5월 9일, 2023년 5월 28일 접속,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5277>
더팩트, "하루만 더 쉬었으면"...K직장인의 꿈 '주 4일제'", 2023년 5월 23일 수정, 2023년 5
월 23일 접속, <https://news.tf.co.kr/read/life/2018147.htm>
동아일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는 실험일 뿐일까[답다이브]”, 2023년 5월 13일 수정,
2023년5월23일 접속,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12/119262275/1>